

성격 신념 질문지(Personality Belief Questionnaire)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 수 덕 황 순 택[†] 박 미 정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성격장애의 역기능적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A. T. Beck과 J. S. Beck이 제작한 성격 신념 질문지(Personality Belief Questionnaire; PBQ)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학생 및 일반인 374명을 대상으로 PBQ와 성격장애 진단검사, Young 도식질문지-단축형을 실시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8주 후에 30명을 대상으로 PBQ를 다시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PBQ의 각 하위 신념척도의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BQ의 내적 상관분석 결과 원본의 성격장애 신념 간 상관 유형 및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성격장애 간 상관 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PBQ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성격장애 진단검사와의 상관분석 결과 두 검사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으며, 그 중에서도 서로 대응하는 척도 간에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PBQ와 Young 도식 질문지의 상관 및 회귀분석 결과 각 성격장애 신념은 개념적으로 관련성이 큰 초기 부적응적 도식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결과 PBQ가 성격장애의 부적응적 인지 도식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어 : 성격 신념 질문지, 역기능적 신념, 성격장애, 초기 부적응 도식

* 이 논문은 2008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8).

연구를 위해 Young 도식질문지 단축형(Young Schema Questionnaire-S3A) 문항을 제공해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이동우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황순택 /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번지
Tel : 043-261-2187 / E-mail : hstpsy@chungbuk.ac.kr

인지이론가들은 역기능적 신념을 통해 성격 장애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Beck & Freeman, 1990; Pretzer & Beck, 1996). 예를 들어 회피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나는 불쾌한 감정을 참을 수 없어’, ‘나는 무능하고 탐탁치 못한 사람이다’와 같은 신념(belief)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념 때문에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거부를 빈번하게 예상하고, 그 결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보인다(Beck, Butler, Brown, Dahlsgaard, Newman, & Beck, 2001). 역기능적 신념은 정신역동 이론, 진화론, 대인관계 이론, 신경생물학적 이론과 같은 성격장애의 다른 이론들로부터 인지이론을 구분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고, 성격장애의 인지치료에서 역기능적 신념은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다(Beck, 1996, 1998).

역기능적 신념 외에도 자기개념, 타인개념, 대처방략 등의 인지적 특성을 통하여 성격장애의 부적응적 행동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Beck & Freeman, 1990). 그리고 각 성격장애는 부적응적인 행동과 신념, 태도, 정서, 대처 방략(strategy)에 의해 특징 지워질 수 있으며, 성격장애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인지, 정서, 행동적 특징들에 기초하여 각 성격장애의 독특한 인지 프로파일을 그릴 수 있다. 이러한 성격장애의 인지 프로파일에서 전형적인 신념과 대처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효율적인 치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성격장애는 축 1 장애와 공존질병율이 높고, 성격장애 간 중복된 태도나 행동들을 많이 보이는데, 인지적 요소들은 다른 장애와의 감별진단에서 성격장애를 정확히 평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Beck, Freeman & Davis, 2004).

Beck과 Freeman(1990)은 이론적·임상적으로

성격장애에 대응하는 역기능적 신념을 제시하고, 이 신념들을 토대로 자기보고형 성격 신념 질문지(Personality Belief Questionnaire; PBQ)를 구성하였다(Beck & Beck, 1991). PBQ는 DSM-III-R에서의 9개 성격장애에 대해 각각 14개의 역기능적 신념을 제시하였다. Beck은 PBQ의 타당화 연구(Beck et al., 2001)를 수행하기 전부터 임상 현장에서 이 질문지를 사용하면서 임상적 관찰을 통해 어떤 성격장애 환자가 PBQ에서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면 그 신념에 맞는 성격장애의 진단 증거에 더 부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Beck et al., 2001).

이 질문지는 증상과 기능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신념을 파악하고,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Bulter, Brown, Beck & Grisham, 2002). 또한 PBQ는 치료 장면에서 크게 두 가지 임상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PBQ에서 산출된 점수로 개인의 성격장애 신념 프로파일을 작성하여 차원적인 접근 방식으로 성격장애 환자들을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주적인 진단체계에서 오는 한계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치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특정적인 역기능적 신념을 확인할 수 있다(Beck et al., 2004).

몇몇 연구자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PB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Arntz, Dietzel 및 Dreessen(1999), Beck 등(2001)의 연구에서 성격장애 환자 및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고, Trull, Goodwin, Schopp, Hillenbrand 및 Schuster(1993)은 일반대 학생을 대상으로 안정된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또한 성격장애와 그 장애에 해당하는 PBQ의 하위척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 각 성격장애에 해당하는 고유한 신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B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Beck 등(2001)은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PBQ를 실시하였다. 성격장애 환자 중 연기성, 반사회성, 분열형, 분열성 성격장애는 환자수가 충분하지 못해 연구에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자기애성, 편집성 성격장애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장애의 인지이론과 PBQ의 구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PBQ의 Cronbach alpha는 .93(편집성)~.81(반사회성)로 좋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8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3(반사회성)~.57(회피성)로 나타나 대부분의 성격장애에서 양호한 신뢰도를 얻었다. 그리고 성격장애 환자에게서 그 성격장애에 대응하는 특정 역기능적 신념 점수가 다른 신념 점수보다 높고, 다른 성격장애 환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특정한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되는 역기능적 신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Dreessen과 Arntz(1995)는 PBQ(Beck & Beck, 1991)와는 별개로 Beck과 Freeman(1990)이 제시한 성격장애의 역기능적 신념을 바탕으로 성격장애 신념 질문지(Personality Disorder Belief Questionnaire; PDBQ)를 제작하였다. Arntz 등(1999)은 각 성격장애마다 20개의 신념들로 구성된 PDBQ 중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장애 신념 척도의 특정성과 안정성을 살펴보고 이후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편집성, 연기성, 경계선 성격장애를 대상으로 PDBQ 질문지를 이용하여 각 신념과 그에 대응하는 성격장애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Arntz, Dreessen, Schouten & Weertman, 2004). 그 결과 일반적으로 정신병리와 연결된 병의 원인이 될 만한 신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6개의 성격장애의 역기능적 신념들은 각각 대응하는 장애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격장애와 그에 대응하는 신념들이 특정하게 상관이 높았지만, Arntz 등(2004)이 제시한 신념의 일부는 그 성격장애에만 특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격장애를 지니지 않은 사람에서도 관찰되었다.

또한, Bulter 등(2002)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역기능적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PBQ(Beck & Beck, 1991)를 실시하였다. 경계선 성격장애 신념 문항은 의존, 무력함, 불신, 거절/유기/감정조절 실패의 두려움(fear of losing emotional control),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극단적 행동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문항은 편집성의 신념에서 5문항, 의존성에서 4문항, 회피성에서 3문항, 연기성과 반사회성에서 각 1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경계선 성격장애 신념을 측정하려는 문항에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다른 성격장애 환자들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내적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Beck의 인지모델에 이어 Young은 심리 도식 모델을 제시하였다(Young, 1990). 그리고 Young은 성격장애와 관련된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도식 질문지(Schema Questionnaire, SQ; Young 1990, 1991)를 구성하였다. SQ에는 역기능적 신념의 조합과, 여러 부적응적인 행동 기술과 증상이 포함되어 있다. SQ로 측정되는 16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들이 축 2의 각 성격장애에 직접적으로 부합되도록 도식을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Schmidt, Joiner, Young과 Telch(1995)의 경험적 연구 결과 SQ 질문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성격장애 증상을 측정하는 질문지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여 그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

Schmidt(1994)의 비임상집단 대상의 연구에서 편집성 성격장애는 불신과 관계가 있었고, 엄격한기준/과잉비판은 강박성 성격장애의 증상과 관련을 보였다. 이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성격장애와 부적응 도식 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연구에서 유기/불안정 도식이 경계선 성격장애에서만 나타나, 중요한 타인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버려질 것이라 여기는 것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서적 억제 도식은 분열성 성격장애와, 불충분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은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관련성이 높아 성격장애와 초기 부적응 도식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Ball & Cecero, 2001; Jovev & Jackson, 2004).

최근에 Reeves와 Taylor(2007)는 비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Young 도식 질문지를 통해 성격장애와 핵심 신념(core beliefs)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초기 부적응 도식 중 몇몇 특정 도식들은 특정한 성격장애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몇몇 성격장애와 밀접하게 관련성을 보이는 도식은 DSM-IV에서 기술된 성격장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초기 부적응 도식이 성격장애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고립/소외 도식이 군집 A 성격장애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고립/소외 도식은 회피성 성격장애의 증상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군집 B 성격장애의 경우,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과 관련성을 보였다.

Beck의 역기능적 신념이나 Young의 초기 부적응도식 모델 외 다른 연구들에서도 성격장애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Dreesen 등의 연구에서 회피성 성격장애는 회피신념, 낮은 자존감, 도식과 일치하는 정보 처리 편향과

관련되어 있었다(Dreesen, Arntz, Hendriks, Keune, & van den Hout, 1999). Weertman 등의 연구에서는 의존성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제 통각 검사에서 일정한 해석 편향을 보이고, 의존성 성격장애의 역기능적 신념이 성격장애와 해석을 매개하는 변인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Weertman, Arntz, Schouten, & Dreesen, 2006).

국내에서 Ellis의 비합리적 신념 또는 Beck의 역기능적 태도와 성격이나 장애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은정, 오경자, 1994; 이홍표, 양익홍, 1997; 최정윤, 이정윤, 1994; 하수경, 1997)가 있었지만, Beck과 Freeman(1990)이 제안한 성격장애의 신념에 대해서는 보고된 연구가 없다. Young(1990)의 도식질문지 한국판(조성호, 2001)이 개발되어 성격장애의 인지도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격장애와 인지도식간의 연관성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Young의 도식만으로 성격장애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Young 도식 질문지(YSQ)의 몇몇 핵심 믿음은 한 성격장애와 관련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격장애나 정신장애와 관련을 보이기도 한다(Reeves & Taylor, 2007). 따라서 각 성격장애의 특정한 역기능적 도식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성격장애의 모든 증상들을 반영하지 않아 YSQ를 통해 성격장애를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eck이 제안한 성격장애 역기능적 신념을 측정할 수 있는 성격 신념 질문지(Personality Belief Questionnaire, PBQ; Beck & Beck, 1999)를 번안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 참가자

충북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374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대학생은 203명(남 108명, 여 95명)으로 평균연령은 21.5세(SD=2.9)이며, 일반 성인은 171명(남 83명, 여 88명)으로 평균연령은 29.4세(SD=7.7)이었다.

측정 도구

성격 신념 질문지

Beck과 Freeman(1990)은 각 성격장애 마다 이론적 및 임상적으로 대응하는 역기능적인 신념을 구성하고, 이 신념을 성격 신념 질문지(Personality Belief Questionnaire; PBQ)라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로 만들었다(Beck & Beck, 1991). 이 척도는 9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계선과 분열형 성격장애를 제외한 DSM-III-R의 9개 성격장애에 각각에 해당한다.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연기성, 수동-공격성, 자기애성, 편집성, 분열성,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각 14문항씩 이뤄져 있으며, “전혀 믿지 않는다”(0)부터 “전적으로 믿는다”(4)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이후 경계선 성격장애 신념은 Bulter 등(2002)의 연구에서 편집성의 신념에서 5문항, 의존성에서 4문항, 회피성에서 3문항, 연기성과 반사회성에서 각 1문항으로 구성하여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번안은 본 연구에서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과정 수료생 1인이 일차적으로 번역한 뒤, 임상심리학 전공 박사학위를 소지한 임상심리전문가가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 각 문항에는 “전

혀 아니다”(1), “대체로 아니다”(2), “그저 그렇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DSM-IV 진단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수동-공격성 성격장애의 신념은 제외하고, 경계선 성격장애의 신념을 포함하여 총 112문항의 PBQ를 사용하였다.

성격장애 진단검사

DSM-IV에 정의된 각 성격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문항을 구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성격장애 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SM-IV에 제시된 성격장애 각각의 진단을 위한 10개의 성격장애 소척도, 총 1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까지의 4점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 있다.

Young 도식 질문지

18개의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0, 1991)이 개발한 도식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단축형(YSQ-S3A)을 사용하였다.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은 생의 초기에 발달하기 시작해서 전 생애를 통해 정교화 된 자신 및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하면서도 지속적인 주제들로, 개인에게 상당한 정도로 부적응을 초래하는 도식으로 정의된다. 이 질문지는 6점 척도(1점-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6점-완벽하게 일치한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의해 측정되는 도식 특성이 더 강한 것이다. 도식 질문지는 18 개의 하위 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도식마다 5문항씩 총 90문항으로 되어있다. 이 중 선행연구(Nelson-

Gray, Huprich, Kissling & Ketchuma, 2004; Reeves & Taylor, 2007)에서 성격장애와 관련이 높게 나타난 11 개 도식(5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식과 각 도식의 내적 일치도는 다음과 같다: 불신/학대(.85), 정서적 억제(.77), 사회적 고립/소외(.75), 부족한 자기 통제/자기훈련(.58), 유기/불안정(.81), 특권의식/웅대성(.52), 승인추구/인정추구(.74), 복종(.74), 실패(.84), 의존/무능감(.79), 엄격한 기준/과잉 비판(.71).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총 3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하는데 평균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전체 자료 수집을 위해 먼저, 대학생의 경우 여러 교양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였다. 일반인의 경우 한정된 직업은 피하고 연령, 성별을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격장애 역기능적 신념 질문지의 검사-재검사의 신

뢰도를 보기위해 126문항의 질문지를 30명 대상으로 8주 간격을 두고 두 번 실시하였다. 각 척도 점수는 척도에 소속된 문항점수의 합으로 산출되었으며,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척도 합 점수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적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alpha를 산출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척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성격 신념 질문지의 내적 일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성격 신념 질문지에 포함된 각 신념 하위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성격 신념 질문지의 내적 일치도를 살펴보기 위해 374명 자료의 Cronbach alpha를 산출하였다(표 2). 그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 alpha는 .92로 높게 나타났으며 9개의 성격장애의 신념에

표 1. 성격 신념 질문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하위척도	대학생		일반인		전체 (n=374)
	남(n=108)	여(n=95)	남(n=83)	여(n=88)	
편집성	32.84(8.06)	29.65(8.02)	30.08(9.61)	29.76(8.03)	30.70(8.49)
분열성	36.81(7.68)	32.40(7.92)	36.16(8.08)	35.48(6.48)	35.23(7.74)
반사회성	34.96(8.26)	31.16(7.30)	32.98(7.79)	30.02(6.73)	32.39(7.79)
경계선	31.92(6.98)	29.60(6.55)	30.04(7.43)	29.15(6.69)	30.26(6.97)
연기성	37.62(7.26)	37.11(6.63)	35.69(7.66)	34.93(6.92)	36.43(7.18)
자기애성	35.84(8.54)	33.18(7.46)	33.22(9.43)	34.48(6.27)	34.26(8.06)
회피성	36.07(5.97)	37.06(5.77)	37.16(6.64)	36.83(5.71)	36.74(6.01)
의존성	35.96(6.54)	36.57(6.44)	35.25(8.22)	34.77(7.33)	35.68(7.11)
강박성	42.31(7.15)	42.25(6.38)	44.80(7.53)	42.76(6.41)	42.95(6.93)

표 2. 성격 신념 질문지의 내적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하위 척도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검사-재검사 신뢰도 (r)
	대학생	일반인	전체	
편집성	.90	.92	.91	.78
분열성	.87	.83	.85	.71
반사회성	.86	.84	.85	.82
경계선	.82	.83	.81	.89
연기성	.81	.83	.82	.67
자기애성	.87	.86	.87	.84
회피성	.71	.73	.71	.63
의존성	.75	.84	.80	.68
강박성	.80	.84	.82	.89

서도 .91(편집성) ~ .71(회피성)로, 성격 신념 질문지는 적절한 수준의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본 질문지에 대한 시간 변화에 따른 반응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검사에 참여했던 사람 중 30명을 대상으로 8주 후에 성격 신념 질문지를 다시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검사-재검사 신뢰도 산출 결과 $r=.89$ (강박성과 경계선 성격 신념 소척도) ~ $r=.63$ (회피성 성격 신념 소척도) 범위에 있었으며, 9개 척도의 상관계수 평균은 .77 이었다.

성격 신념 질문지의 내적 상관

본 연구에서는 성격 신념 질문지(PBQ)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성격장애의 신념에서도 다른 군집보다 같은 군집 내 성격장애 신념 간 높은 상관이 존재하며, 서재삼과 황순택(2006)에서 확인된 성격장애의 상관관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지, Beck 등(2001)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PBQ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표 3) 9가지 성격장애 신념 점수 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였고, 그 중에서도 보다 큰 관련성을 보이는 신념들이 존재하였다. 먼저, 편집성은 경계선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r=.82, p<.001$), 반사회성, 분열성, 자기애성($r=.61, r=.57, r=.52, p<.001$)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분열성은 편집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r=.57, p<.001$) 반사회성과 경계선과도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r=.53, p<.001$). 반사회성은 경계선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며($r=.68, p<.001$) 편집성과도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r=.61, p<.001$). 그리고 자기애성, 분열성($r=.59, r=.53, p<.001$)과도 다소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경계선의 문항이 편집성, 의존성, 회피성, 연기성, 반사회성 신념의 문항과 겹치기 때문에 이들과 높은 상관이 나타났는데, 편집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며($r=.82, p<.001$), 반사회성($r=.68, p<.001$), 회피성($r=.66, p<.001$), 의존성($r=.62, p<.001$)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강박

표 3. 성격 신념 질문지의 하위 척도 간 상관관계

	편집성	분열성	반사회성	경계선	연기성	자기애성	회피성	의존성
편집성	-							
분열성	.57***	-						
반사회성	.61***	.53***	-					
경계선	.82***	.53***	.68***	-				
연기성	.47***	.35***	.47***	.51***	-			
자기애성	.52***	.51***	.59***	.59***	.67***	-		
회피성	.48***	.34***	.44***	.66***	.35***	.38***	-	
의존성	.38***	.11*	.35***	.62***	.44***	.32***	.58***	-
강박성	.27***	.20***	.30***	.29***	.30***	.25***	.38***	.36***

* $p < .05$, *** $p < .001$

성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r = .29, p < .001$).

연기성은 자기애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r = .67, p < .001$), 경계선($r = .51, p < .001$)과도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자기애성은 연기성과 상관이 가장 높았고($r = .67, p < .001$), 반사회성($r = .59, p < .001$)과 경계선과도 상관이 높았다($r = .59, p < .001$). 회피성은 경계선($r = .66, p < .001$)과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의존성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r = .58, p < .001$). 의존성은 경계선과($r = .62, p < .001$) 회피성과($r = .58, p < .001$)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강박성은 다른 성격장애 신념들과 .38~.20의 다소 낮은 상관을 보이며, 뚜렷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신념척도는 없었으나, 그 중 회피성과 상관이 가장 높았다($r = .38, p < .001$).

성격장애 진단검사 및 Young 도식 질문지와 의 상관

성격 신념 질문지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는 질문지와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성격장애 진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성격장애 진단검사(서재삼과 황순택, 2006)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성격 신념 질문지가 성격장애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성격 신념 질문지가 성격장애의 인지적 도식을 적절히 측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기 부적응 도식을 측정하는 Young 도식 질문지와 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경우 DSM-IV에서 제시한 10개의 하위 성격장애 척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PBQ에 분열형 신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단검사의 분열형(ST) 척도를 제외하고 9개의 하위 척도만 분석하였다. PBQ의 9가지 하위 신념척도와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9가지 성격장애 척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 두 검사의 대응되는 성격장애 간 높은 상관을 보였다(표 4).

검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PBQ의

표 4. 성격 신념 질문지와 성격장애 진단검사와의 상관관계

성격 신념 질문지 하위척도 \ 성격장애 진단검사 하위척도	PN	SZ	AS	BL	HT	NC	AV	DP	OC
편집성 신념	.57***	.45***	.33***	.35***	-.05	.22***	.36***	.30***	.17**
분열성 신념	.43***	.50***	.33***	.27***	-.17**	.07	.18***	.03	.13*
반사회성 신념	.47***	.44***	.52***	.38***	-.03	.23***	.23***	.20***	.04
경계선 신념	.59***	.55***	.44***	.45***	.02	.18**	.43***	.45***	.11*
연기성 신념	.32***	.10	.32***	.33***	.26***	.38***	.10*	.26***	.09
자기애성 신념	.40***	.30***	.39***	.34***	.14**	.29***	.15**	.19***	.12*
회피성 신념	.49***	.32***	.25***	.40***	.08	.16**	.42***	.47***	.20***
의존성 신념	.33***	.17**	.11*	.24***	.16**	.17**	.32***	.52***	.14**
강박성 신념	.30***	-.02	.05	.21***	.15**	.32***	.08	.17**	.46***

* $p < .05$, ** $p < .01$, *** $p < .001$

주. PN: 편집성 성격장애 척도, SZ: 분열성 성격장애 척도, AS: 반사회성 성격장애 척도, BL: 경계선 성격장애 척도, HT: 연기성 성격장애 척도, NC: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 AV: 회피성 성격장애 척도, DP: 의존성 성격장애 척도, OC: 강박성 성격장애 척도

편집성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편집성(PN)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고($r = .57, p < .001$), 분열성($r = .45, p < .001$)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지만, 군집 B의 연기성(HT)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r = -.05$).

PBQ의 분열성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분열성(SZ)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 = .50, p < .001$), 연기성(HT)과는 부적상관을 보이고($r = -.17, p < .01$), 의존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 = .03$).

반사회성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반사회성(AS)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r = .52, p < .001$), 군집 A의 성격장애 편집성($r = .47, p < .001$), 분열성($r = .44, p < .001$) 성격장애와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경계선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경계선(BL)

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45, p < .001$), 편집성($r = .59, p < .001$), 분열성($r = .55, p < .001$)과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

연기성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연기성(HT)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r = .26, p < .001$), 진단검사의 다른 척도들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같은 군집에 속하는 자기애성($r = .38, p < .001$), 경계선($r = .33, p < .001$), 반사회성($r = .32, p < .001$)과 높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애성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자기애성(NC)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r = .29, p < .001$), 연기성과 마찬가지로, 진단검사의 다른 척도들과 더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편집성($r = .40, p < .001$), 반사회성($r = .39, p < .001$), 경계선($r = .34, p < .001$), 분열성($r = .30,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회피성 신념 척도는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회피성 성격장애 척도(AV)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42, p<.001$), 편집성($r=.49, p<.001$)과 의존성($r=.47, p<.001$)과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군집 B의 연기성 성격장애 척도(HT)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08$).

의존성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의존성 척도(DP)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52, p<.001$), 진단검사의 다른 척도들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반사회성과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r=.11, p<.05$), 군집 B에 속하는 자기애성, 연기성과도 낮은 상관을 보였다.

강박성 척도는 진단검사의 강박성 척도(OC)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46, p<.001$), 자기애성($r=.32, p<.001$), 편집성($r=.30, p<.001$), 경계선($r=.21, p<.001$), 의존성($r=.17, p<.01$), 연기성($r=.15, p<.01$)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PBQ의 척도들은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하위 척도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PBQ의 편집성, 분열성, 반사회성, 의존성, 강박성은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각각 대응되는 하위척도(PN, SZ, AS, DP, OC)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성격장애 성향이 강할수록 그에 해당하는 성격장애의 역기능적인 신념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계선, 연기성, 자기애성, 회피성의 경우 그에 해당되는 진단검사 하위 척도들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다른 일부 하위척도들과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성격 신념 질문지(PBQ)와 Young

도식 질문지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성격장애의 역기능적 신념(belief)과 부적응적인 도식(schema)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신념과 도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PBQ와 Young 도식 질문지 모두 성격장애의 인지적인 요소를 측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질문지간의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PBQ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PBQ와 Young 도식 질문지와의 상관분석 결과, 각각의 성격장애 신념은 11개 초기 부적응 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 EMS)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강박성 신념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격장애 신념들은 11개 부적응 도식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였다. 상관분석 결과에서 각 성격장애 신념은 모든 부적응 도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기 때문에, 각 성격장애의 신념에 더 밀접하게 관련성을 보이는 특정 부적응 도식을 알아보기 위해 각 성격장애 신념들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1가지 부적응 도식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방식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PBQ의 편집성 신념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11가지 부적응 도식 중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소외, 의존/무능감, 특권의식/웅대성, 정서적 억제 포함된 모형이 전체 변량의 60%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도식들이 편집성 신념과 의미 있는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PBQ의 분열성 신념의 경우, 사회적고립/소외, 특권의식/웅대성, 불신/학대, 유기/불안정, 의존/무능감, 정서적 억제가 포함된 모형이 전체 변량의 33%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도식들이 분열성 신념과 의미 있는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성격장애 신념에 대한 부적응 도식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R^2	R^2 변화량	F 변화량
편집성	불신/학대	.60	.56	.56	478.01***
	사회적고립/소외	.19	.58	.02	14.45**
	의존/무능감	-.16	.59	.01	8.74**
	특권의식/용대성	.09	.59	.01	7.47*
	정서적 억제	.10	.60	.01	4.45*
분열성	사회적고립/소외	.29	.25	.25	123.63***
	특권의식/용대성	.19	.29	.04	20.88***
	불신/학대	.27	.30	.01	6.87***
	유기/불안정	-.14	.31	.02	8.63*
	의존/무능감	-.20	.32	.01	5.66**
	정서적 억제	.18	.33	.02	8.20**
반사회성	불신/학대	.38	.31	.31	168.00***
	실패	.30	.33	.02	9.87***
	특권의식/용대성	.16	.34	.02	9.62**
	의존/무능감	-.16	.35	.01	4.66*
경계선	불신/학대	.46	.60	.60	553.28***
	실패	.14	.64	.04	43.96**
	사회적고립/소외	.15	.65	.01	10.27**
	복종	.11	.65	.01	6.94*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08	.66	.00	4.69*
연기성	유기/불안정	.23	.22	.22	107.53***
	승인-인정추구	.28	.29	.07	35.52***
	불신/학대	.16	.30	.02	8.91*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17	.31	.01	5.14**
	특권의식/용대성	.16	.32	.01	6.27*
자기애성	불신/학대	.35	.25	.25	124.74***
	특권의식/용대성	.32	.33	.08	42.74***
회피성	사회적 고립/소외	.26	.22	.22	107.01***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23	.27	.05	26.62***
	유기/불안정	.16	.28	.01	7.26**
의존성	유기/불안정	.27	.26	.26	130.23***
	의존/무능감	.33	.31	.06	31.42***
	승인-인정추구	.22	.34	.02	13.08***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11	.34	.01	4.40*
강박성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31	.21	.22	102.00***
	승인-인정추구	.30	.28	.07	34.13***

* $p < .05$, ** $p < .01$, *** $p < .001$

반사회성 신념의 경우, 불신/학대, 실패, 특권의식/옹대성, 의존/무능감의 4가지 도식이 포함된 모형이 전체 변량의 35%를 설명함으로써 이 도식들이 반사회성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계선 신념의 경우, 불신/학대, 실패, 사회적 고립/소외, 복종,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이 포함된 모형이 전체 변량의 66%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도식들이 경계선 신념과 의미 있는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연기성 신념의 경우, 유기/불안정, 승인-인정 추구, 불신/학대,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특권의식/옹대성이 포함된 모형이 전체 변량의 32%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도식들이 연기성 신념과 의미 있는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애성 신념의 경우, 불신/학대와 특권의식/옹대성이 포함된 모형이 전체 변량의 33%를 설명하며, 이 도식은 자기애성 신념을 강하게 보이는 사람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회피성 신념의 경우, 사회적 고립/소외,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유기/불안정의 3가지 도식이 포함된 모형이 전체 변량의 28%의 설명력을 지녔다. 이 세 가지 도식이 회피성과 가장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의존성 신념의 경우, 유기/불안정, 의존/무능감, 승인-인정 추구, 엄격한 기준/과잉비판의 4가지 부적응 도식이 포함된 모형이 전체 변량의 34%를 설명하였다. 이 네 가지 도식은 의존성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과 높은 관련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강박성 신념의 경우, 엄격한 기준/과잉비판과 승인-인정 추구 2가지 부적응 도식의 모형이 전체 변량의 28%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엄격한 기준/과잉비판과 승인-인정 추구의 부

적응 도식이 강박성 신념과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Beck과 Beck(1991)이 성격장애 환자의 역기능적인 신념들을 질문지로 구성한 성격 신념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여 PBQ가 성격장애의 신념을 측정하기에 유용한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PBQ는 편집성, 분열성, 반사회성, 경계선, 연기성, 자기애성,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의 9개 성격장애의 역기능적인 신념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를 산출한 결과 전체문항의 경우 .92로 나타났으며, 9가지 하위 척도의 범위는 .95(분열성)~.71(회피성)로 대체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PBQ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산출 결과 .89(강박성)~.63(회피성)의 범위였으며, 9개 하위 척도의 평균은 .77로 나타나 시간에 따른 검사의 안정성 또한 대체로 양호하였다. 본 연구에서 PBQ의 신뢰도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성격 신념 질문지가 신뢰로운 도구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Beck 등(2001), Trull 등(1993)의 연구에서 PBQ의 신뢰로운 내적 일치도가 확인된 것과 일치하였다.

다음으로 PBQ의 구성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살펴보았다. PBQ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9가지 하위 척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하위 척도 간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그 중에서 서로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신념들이 존재하였다. 편집성 신념

은 반사회성, 분열성 신념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분열성 신념은 편집성 신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반사회성 신념은 경계선 신념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경계선은 편집성, 반사회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연기성 신념은 자기에성 신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회피성 신념은 의존성 신념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두 신념 모두 경계선 신념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강박성 신념은 같은 C 군집의 회피성과 의존성과 가장 관련이 깊었지만, 다른 신념들에 비해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PBQ 내에서 신념들 간의 이러한 관련성은 Beck 등(2001)의 연구에서 PBQ내 관계 양상과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연구에서 성격장애간의 관계 양상과 일치하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Beck 등(2001)의 연구에서 신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편집성 신념은 분열성 신념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 연기성 신념은 자기에성 신념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회피성 신념은 의존성 신념과 서로 가장 높은 관련성이 보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련을 지니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내적 상관에서는 반사회성과 경계선 척도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연기성과 자기에성 척도 간의 높은 관련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군집 내의 성격장애들 간에도 상관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성격장애들 간의 구조가 본 연구의 성격장애 신념들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성격장애 및 역기능적 신념의 구조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어 PBQ가 성격장애의 특성을 잘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계선 신념의 경우 편집성, 의존성, 회피성, 연기성, 반사회성 신념 척도에서 문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들

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 특히 편집성 신념과는 14문항 중 5문항이 같으며, .82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계선 신념의 경우, 경계선 성격장애만의 고유한 신념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PBQ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른 두 검사와 각각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성격장애 진단검사(서재삼과 황순택, 2006)와의 관련성을 통하여 PBQ가 성격장애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성격장애 진단검사의 하위 성격장애 척도와 PBQ의 하위 성격장애 신념 척도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서로 대응하는 척도 간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PBQ의 편집성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편집성 척도(PN)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분열성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분열성과, 반사회성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반사회성과, 의존성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의존성과, 강박성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강박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 외의 PBQ의 경계선, 연기성, 자기에성, 회피성 신념척도가 그에 대응하는 진단검사의 척도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상관비교 기준을 하나의 PBQ 척도로 삼고 모든 진단검사 척도를 비교하지 않고, 기준을 한 진단검사 하위 척도로 정하고, 나머지 PBQ 척도를 상관비교 할 경우 PBQ의 경계선, 연기성, 회피성 신념 척도는 그에 해당하는 진단검사의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자기에성 신념 척도는 진단검사의 자기에성과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자기에성 신념의 타당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8가지 하위 신념 척도들은 성격장애와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역기능적 신념이 높게 나타난다면, 그에 대응하는 성격장애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격장애 신념과 밀접하게 관련성을 보이는 특정 도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9가지 하위 신념척도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11가지 부적응 도식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방식의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 성격장애 신념에 대하여 2~6가지 도식이 서로 다르게 관련성을 보였다.

먼저 PBQ의 편집성 신념에 대해서는 불신/학대, 사회적 고립/소외, 의존/무능감, 특권의식/웅대성, 정서적 억제 도식이 밀접하게 관련된 도식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편집성 신념척도가 편집성 성격장애의 중요한 특징인 타인의 동기가 악의에 찬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 타인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잘 측정한다고 판단된다.

분열성 신념 척도는 사회적 고립/소외, 특권의식/웅대성, 불신/학대, 유기/불안정, 의존/무능감, 정서적 억제 도식들과 관련이 높게 나타났다. 분열성 신념을 가진 자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정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각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하며, 여기에서 이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결과 이들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인지적 가정들을 지니게 되고, 행동특성으로는 홀로 생활하며, 관여를 적게 한다(Beck et al., 2004). 이들의 핵심 인지는 사람들로부터의 고립과 분리(조성호, 2000)인데, 사회적 고립/소외 도식과 분열성 신념척도가 높은 관련성을 보여 수렴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반사회성 신념은 불신/학대, 실패, 특권의식/

웅대성, 의존/무능감 도식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대인관계적이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지각하며, 자신은 현명하고, 완고하며, 외부환경에 의해 구속받는다 생각하며, 같은 행동이더라도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타인은 'pathetic thief'라고 지각한다(Beck et al., 2004). 이러한 핵심 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반사회성 신념과 불신/학대 도식의 높은 상관을 보여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경계선 신념은 불신/학대, 실패, 사회적 고립/소외, 복종,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도식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세상을 위협하고 악의에 차있다고 지각하면서 자신은 힘없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지각하며, 고립감을 느끼고,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다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 경계선의 핵심 신념을 잘 반영하는 도식들과 높은 상관을 보여 경계선 성격장애 신념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경계선 신념 척도는 부적응 도식 전체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Young, Klosko, 및 Weishaar(2003)는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은 16개의 거의 모든 심리도식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도식을 치료하거나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격 장애의 신념이 여러 도식과 .60이상의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경계선 성격장애 신념이 높을 경우 여러 부적응 도식을 지니고 있어 한 가지 극단적인 정서에서 급격하게 다른 정서를 보이는 등 불안정한 정서양상이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기성 신념은 유기/불안정, 승인-인정추구, 불신/학대,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특권의식/웅대성 도식과 관련성을 보였다. 연기성 성격장

에는 외부의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며, 내적 경험보다는 외부 사건을 중심으로 배워나간다. 또한 이들은 거부되는 것을 막고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취하기도 한다(Beck et al., 2004). 자신과 관계된 대상이 불안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유기/불안정 도식과, 타인으로 부터 승인, 인정, 관심을 받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승인-인정 추구 도식이 높게 나타나고,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지각하는 특권의식/웅대성 도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기성 성격장애를 잘 반영하는 심리도식들이 연기성 신념과 밀접한 관련을 보여 연기성 신념 척도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자기애성 신념은 불신/학대와 특권의식/웅대성 도식과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며, 자신은 열등한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 특별해져야만 한다는 핵심 신념을 지니고 있다(Beck et al., 2004). 타인을 믿지 못하고, 안전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불신/학대 도식과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권리나 각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남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더 주장하면서 힘을 얻기 위해 우월성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특권의식/웅대성 도식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도식이다. 이러한 도식들이 자기애성 신념 척도와 높은 관련을 보여 수렴타당도를 지지하였다.

회피성 신념은 사회적 고립/소외,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 유기/불안정 도식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세상과 고립되어 있고, 남들과 다르다는 사회적 고립/소외 도식과 자기

통제 능력이나 좌절을 견뎌내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불편감을 회피하려는 부족한 자기통제/자기훈련도식은 회피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회피성 신념이 이 두 도식과 관련성을 보여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의존성 신념은 유기/불안정, 의존/무능감, 승인-인정추구, 엄격한 기준/과잉비판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자신과 중요한 대상이 불안정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유기/불안정 도식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하는 의존/무능감 도식은 의존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위 도식들이 자신을 부적절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환경이나 다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없어하며,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는 자신들을 돌봐주고 보호하고 자신의 삶을 맡아줄 누군가를 찾으려하는 의존성 성격장애의 핵심인지와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의존성 신념 척도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강박성 신념은 엄격한 기준/과잉비판과 승인-인정추구 도식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행동과 수행에 대해 매우 높은 내적인 기준을 지니고 있으며, 완벽주의, 규칙과 의무감을 지키려하고, 비판당하는 것을 피하려는 엄격한 기준/과잉비판 도식과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승인-인정추구 도식은 강박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이 도식이 강박성 신념과 관련을 보임으로써 강박성 신념 척도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반사회성과 연기성을 제외하고 PBQ와 YSQ-S3A와의 관계는 Nelson-Gray 등(2004), Reeves와 Taylor(2007)의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성격 신념 질문지의 9가지 하위 척도에서 전체적으로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본 성격 신념 질문지(PBQ)는 각각의 성격장애가 지니고 있는 핵심 신념(core beliefs)을 잘 측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격장애 특성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그에 해당하는 핵심신념과 부적응 도식이 잘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PBQ 유용성을 알 수 있었다. PBQ의 9개 하위 척도 점수로 성격장애의 인지 프로파일을 그려볼 수 있으며, 성격장애를 범주적이 아닌 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성격장애 신념에 초점을 두어 개념화하고 치료에 접근할 수 있겠다. 성격장애 신념들 간에 관련성을 보이는데, 이는 성격장애 진단에서 몇몇 성격장애의 공존이나 관련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또는 성격장애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성격장애의 인지적 접근에서 가장 핵심적인 Beck과 Young의 신념과 도식을 활용하여 성격장애와의 관련성을 살펴봤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Beck이 설명하는 성격장애의 역기능적 신념과 Young의 초기 부적응 도식간에는 높은 상관을 보여 두 접근 모두 성격장애의 인지적 요소를 잘 측정하며, 성격장애에서 인지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격장애 신념에 대해 몇몇 신념에 대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도식이 존재하고, 한 성격장애의 신념을 더 잘 설명해주는 특정 도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PBQ와 YSQ를 같이 사용하여 성격장애의 인지 프로파일을 구체화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PBQ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성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계선 신념의 경우 다른 신념척도와 문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경계선의 핵심적인 인지보다 다른 성격장애의 핵심 인지가 더 반영되었을 수 있으므로 성격장애로 진단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경계선 관련 신념을 좀 더 명확하게 관찰해볼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임상 현장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생태적인 타당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성격장애 간에 신념 및 도식의 관련성이 높고, 같은 도식을 지녔어도 대처 반응이 다르고 정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도식과 신념, 정서, 행동 간의 연관성과 조절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은정, 오경자 (1994). 우울증상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행동요인들: 3개월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13, 1-19.
-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273-288.
- 이흥표, 양익홍 (1997). 분열형 성격과 비합리적 신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161-171.
- 조성호 (2000). 이상심리학 시리즈. 분열성 성격장애와 분열형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77-192.
- 최정훈, 이정운 (1994). 사회적 불안에서의 비합리적 신념과 상황 요인. 한국심리학회

- 지: 상담과 심리치료, 6, 21-47.
- 하수경 (1997). Ellis의 비합리적 신념과 성격특 성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rntz, A., Dietzel, R., & Dreesen, L. (1999). Assumption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specificity, stability and relationship with etiological facto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545-557.
- Arntz, A., Dreesen, L., Schouten, E., & Weertman, A. (2004). Beliefs in personality disorders: A test with the personality disorder belief questionnair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 1215 - 1225.
- Ball, S. A., & Cecero, J. J. (2001). Addicted patients with personality disorders: Traits, schemas, and presenting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5, 72 - 83.
- Beck, A. T., & Beck, J. S. (1991). *The Personality beliefs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eck, A. T., Butler, A. T., Brown, G. K., Dahlsgaard, K. K., Newman, C. F., & Beck, J. S. (2001). Dysfunctional beliefs associated with specific personality disorder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9, 1213-1225.
- Beck, A. T., &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ck, A. T., Freeman, A., & Associates. (2004).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2th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ck, J. S. (1996).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P. A. Salkovskis, *Frontiers of Cognitive Therapy* (pp.165-181).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ck, J. S. (1998). Complex cognitive therapy treatment for personality disorder patients.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2 (2), 170-194.
- Bulter, A. C., Brown, G. B., Beck, A. T., & Grisham, J. R. (2002). Assessment of dysfunctional beliefs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0, 1231-1240.
- Dreesen, L., & Arntz, A. (1995). The Personality Disorder Beliefs Questionnaire (short version). Maastricht: author.
- Dreesen, L., Arntz, A., Hendriks, T., Keune, N., & Van den Hout, M. (1999).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and implicit schema-congruent information processing bias: A pilot study with a pragmatic inference task.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7, 619-632.
- Jovev, M., & Jackson, H. J. (2004). Early maladaptive schemas in personality disordered individual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8, 467 - 478.
- Nelson-Gray, R. O., Huprich, S. K., Kissling, G. E., & Ketchum, K. (2004).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Beck's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undergraduate analogu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219-233.
- Pretzer, J. L., & Beck, A. T. (1996). A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J. F. Clarkin & M. F. Lenzenweger (Eds.), *Major theories of personality. disorder* (pp.36-105). New York: Guilford Press.
- Reeves, M., & Taylor, J. (2007). Specific

- relationships between core beliefs and personality disorder symptoms in a non-clinical sam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4, 96-104.
- Schmidt, N. B. (1994). The schema questionnaire and the schema avoidance questionnaire. *The Behavior Therapist*, 17, 90 - 92.
- Schmidt, N. B., Joiner, T. E., Young, J. E., & Telch, M. J. (1995). The Schem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measure of maladaptive schema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295 - 321.
- Trull, T. J., Goodwin, A. H., Schopp, L. H., Hillenbrand, T. L., & Schuster, T. (1993).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cognitive measure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536-546.
- Weertman, A., Arntz, A., Schouten, E. & Dreesen, L. (2006). Dependent personality traits and information processing: Assessing the interpretation of ambiguous information using the Thematic Apperception Test.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5, 273-278.
- Young, J. E. (1990, 1994).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 focused approach*.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 Young, J. E. (1991). *Early maladaptive schemas*. Unpublished manuscript.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W.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원 고 접 수 일 : 2008. 7. 16.
수정원고접수일 : 2008. 9. 4.
계 재 결 정 일 : 2008. 9. 9.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ersonality Belief Questionnaire (PBQ)

Soodeok Cho

Soon-Taeg Hwang

Mi-j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ersonality Belief Questionnaire (PBQ). Students and non-clinical sample (N=374) completed the PBQ, the Diagnostic Test of Personality Disorders (DTPD), and the Young Schema Questionnaire-S3A (YSQ). The PBQ was readministered to 30 of the participants eight weeks after the initial administration. Good internal consistencies and test-retest reliabilities were found for all of the PBQ subscales. The inter-correlations among the PBQ subscales were moderate-to-strong. Most of the PBQ subscales were found to reflec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disorders in the DSM-IV. Th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study by Beck et al. (2001). To test the convergent validity of PBQ,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with the DTPD and the YSQ. All of the PBQ subscale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rresponding subscales of the DTPD.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PBQ and the YSQ showed that the PBQ was associated with maladaptive schemas that reflect dysfunctional beliefs of personality disorders. The results support the cognitive theory of personality disorders and the PBQ is a reliable and valid test.

Key words : Personality Belief Questionnaire, Dysfunctional Beliefs, Personality Disorders, Early Maladaptive Schemas

부록. 성격 신념 질문지의 문항

1. 나는 업무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무능하고 탐탁치 못한 사람이다.
2. 사람들은 현재는 그렇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비판적, 요구적 또는 거부적으로 변할 수 있다.
3. 나는 불쾌한 감정들을 참고 견디기 어렵다.
4.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면, 그들은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5. 열등한 사람이나 부적응적인 사람으로 보여 지는 것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6. 불쾌한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한다.
7. 불쾌한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르면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한다. - 예를 들어 술 마시기, 마약하기, tv보기 등
8.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한 상황은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이지 않아야 한다.
9. 불쾌한 감정들은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조절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10.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11. 실패할지도 모르는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12.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13. 사람 관계에서 긴장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관계를 끊어버려야 한다.
14. 어떤 문제에 대해 무시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15. 나는 부족하고 허약하다.
16. 내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또는 어떤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항상 필요하다.
17.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자신이 마음만 내키면 나를 배려하고, 지지하고, 믿음을 줄 수 있다.
18. 나는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19. 나는 강한 사람과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 외톨이나 마찬가지다.
20. 이 세상에서 최악의 일은 버림받는 것이다.
21. 내가 만일 사랑받지 못한다면 언제나 불행할 것이다.
22. 나를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23. 지지자의 온정을 계속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한다.
24.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는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
25. 가능한 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26. 나 혼자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27.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잘 해나갈 수가 없다.
28.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29. 나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30. 일이 다 마무리되었는지의 여부는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
31.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대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무책임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며, 올바른 방법을 잘 모른다.
32. 어떤 일이든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순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34. 무슨 일이든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35. 사소한 실수나 잘못으로도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6. 일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37.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38. 다른 사람들도 나의 일 처리 방식을 따라야 된다.
39. 일을 최고 수준으로 해내지 못했다면 실패한 것이다.
40. 결점이나 결함,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

41. 세세한 사항들도 매우 중요하다.
42. 나의 일 처리 방식이 대체로 가장 좋은 방식이다.
43. 나 자신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44. 일을 잘 처리하려면 강압적으로 하든지 교활해져야 한다.
45. 우리의 삶은 생존경쟁이며, 강자만 살아남는다.
46. 상대를 먼저 제압하지 못하면 내가 당하고 말 것이다.
47. 약속을 지키거나 빚을 갚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48. 들키지만 않는다면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는 것도 무방하다.
49.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몫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
50. 사람들은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다.
51.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도리어 내가 사람들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
52. 처벌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
53.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54.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55. 처벌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므로 잘못된 결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56.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탓이다.
57.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58. 나는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서 특별한 대우나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5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60. 인정받고 칭찬받고 감탄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61. 나의 지위에 대해 존경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62. 사람들은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
63.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아야만 한다.
64. 내가 당연히 받을 존중을 받지 못하거나 어떤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65. 다른 사람들은 칭찬을 받거나 부를 누릴만한 가치가 없다.
66. 사람들은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67. 다른 사람의 욕구가 나의 욕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68. 나는 재능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출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69. 나처럼 똑똑한 사람만이 날 이해할 수 있다.
70. 내가 위대한 것들을 꿈꾸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71. 나는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이다.
72. 나는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73.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감동시키지 못하면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74.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75.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것이다.
76. 나에게 긍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다.
77.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78.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79. 내 직감은 틀림이 없다. 골치 아프게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80. 만일 내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 그들은 나의 약점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81. 나는 지루함을 참을 수 없다.
82. 나는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느끼면 바로 착수해야 한다.
83.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면 극단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

84. 이성적인 사고와 계획보다는 느낌과 직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
85. 나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86. 나로서는 혼자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87. 무언가를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나 혼자 하는 게 더 좋다.
88. 많은 경우 나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
89.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90.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91. 나 자신의 기준과 목표는 나 혼자 정한다.
92.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보다는 나의 사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
93.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신경 쓰지 않는다.
94.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힘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95. 사람들 속에서 곤란해 하는 것 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
96. 다른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97. 사람들 속에 휩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
98. 사람들과의 관계는 성가시고 자유를 방해한다.
99. 나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
100. 사람들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다.
101.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할 것이다.
102. 나는 항상 빈틈없이 경계해야 한다.
103.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건 위험하다.
104. 사람들이 나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은 나를 이용하고 착취하기 위한 것이다.
105. 사람들에게 빈틈을 보이기만 하면 그들은 나를 이용해먹을 것이다.
106. 대체로 사람들은 악의가 있다.
107. 다른 사람들은 고의로 나를 떨어뜨리려 할 것이다.
108.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싶어 한다.
109. 다른 사람들이 날 괴롭혀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하면 결국 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될 것이다.
110.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이용할 것이다.
111. 사람들의 말 속에는 흔히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다.
112.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신의가 없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 채점

- 회피성 성격장애 신념 = 1~14
의존성 성격장애 신념 = 15~28
강박성 성격장애 신념 = 29~42
반사회성 성격장애 신념 = 43~56
자기애성 성격장애 신념 = 57~70
연기성 성격장애 신념 = 71~84
분열성 성격장애 신념 = 85~98
편집성 성격장애 신념 = 99~112
경계선 성격장애 신념 = 4, 9, 13, 15, 16, 18, 27, 46, 83, 99, 102, 105, 111, 112